

Title: Apperceptional Glimpse: Traumatized Conventions

COVID-19 팬데믹이 몰고 온 전지구적 쇼크는 2차 대전 이래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격변을 가져왔고, 가지고 오고 있으며, 가지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리즘으로 대표되는 현대 문명은 이 전례 없는 도전을 당혹스럽게 맞이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New Normal'이라는 이름으로 팬데믹 이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큐레이터로서 내게는 팬데믹이 야기하는 현실이 New도, Normal도 아니다. 오히려 팬데믹은 하나의 계기일 뿐, 우리가 '오래된 미래'를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것뿐인지도 모르겠다. 신경망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의 발달로 AI는 이제 인간과 대응하는 '하나의 완전한 자아' 수준에 도달 중이고, 이는 단순히 기술로서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넘어 '인간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 제공 가능한 또 다른 주체의 등장을 의미한다. 즉, 우리는 '인간과 인류문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제3자의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법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AI가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자기객관화의 모티베이션이었다면, COVID-19 팬데믹은 우리를 둘러싼 외부환경이 인류 존재에 대해 던지는 객관적 질문이다. '인간은 인류를 둘러싼 환경과 사물들 사이의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느 곳에 존재해야 하는가?'가 그것이다. 문제는 보다시피 이 질문이 우리의 예상보다 매우 빠르고, 급격하고, 포괄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Herman Kolgen과 Shohei Fujimoto, 그리고 Kyoka와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나는 바이러스가 DNA와 세포를 재료삼아 RNA를 전사(Transcription)하듯이, 현 팬데믹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얻은 이해와 발견들을 예술이라는 매체로 풀어내어 우리 사회의 화두로써 Apperceptional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마주할 도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다각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이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AI를 포함해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의 문제해결능력을 어떻게 사회적 내러티브로 현명하게 풀어내는가에 달려있다고 사료된다. 허나, 이러한 접근법은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며,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상 어느 한쪽을 '정상'이라고 가늠하는 잣대도 아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면역체계를 회피하듯, 인류 역시 또 한 번의 변모(Metamorphosis)를 통해 자기혁신을 하기 위한 장구한 여정의 한 페이지일 뿐이다. 모쪼록 이 프로젝트가 이러한 장구한 여정에서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 살짝 엿보는(Glimpse) 계기가 되길 바란다.

Jay Bang

Senior Curator

Paradise Art Space, Korea